

## 다문화 이주민의 여가 관련 뉴스 담론 분석

김주영<sup>1</sup> · 윤소원<sup>2</sup>

<sup>1</sup>나사렛대학교 연구교수 · <sup>2</sup>용인대학교 부교수

### Analyzing News Discourse on Leisure among Multicultural Migrants

Kim, Joo Young<sup>1</sup> · Yoon, So-won<sup>2</sup>

<sup>1</sup>Nazarene University · <sup>2</sup>Yong In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discourse surrounding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migrants is constructed in South Korean news media. Utilizing the Big KINDS platform provid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a total of 19,021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23 and February 2025 containing keywords such as “multicultural,” “migrant,” and “leisur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fter preprocessing the text data through morpheme analysis and stopword removal,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was applied to identify latent topic structures. To determine the optimal number of topics, three evaluation metrics—Coherence Score, Held-out Likelihood, and Lower Bound—were used, and six topics were identified as optimal. The extracted topics were interpreted as: (1) multicultural leisure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 discussions, (2) family integration of marriage migrants, (3) education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youth, (4) community-based inclusion activities, (5) integrated welfare and leisure services, and (6) global festivals and cultural exchanges. The findings suggest that leisure serves as a medium for social inclusion and cultural interaction for multicultural migrants. This study offers empirical insights into how news discourse reflects and shapes public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leisure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nclusive policy development.

**Key words :** Multicultural Migrants, Leisure Activities, Social Integration, Topic Modeling

주요어 : 다문화, 여가활동, 사회통합, 토픽모델링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6019010)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So-won

E-mail: krssow77@naver.com

Received: May, 7, 2025 Revised: May, 28, 2025 Accepted: June, 13, 202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여가 활동은 단순한 여가시간의 활용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정서적 안정, 신체적 건강 유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가 활동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주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장과 같은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로 기능한다(김보람, 김매이, 2021; 한지훈, 이문진, 서광봉 2022). 특히 현대 사회의 다원화 및 다문화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여가 활동은 사회통합 및 문화적 상호작용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문화 이주민들은 여가 활동 참여에 있어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언어적 장벽, 사회문화적 이질감, 제도적 접근성 부족, 경제적 제약, 정보 격차 등은 이들의 여가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서적·사회적으로 통합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윤채빈, 박수정, 2012; 김종순, 오세숙, 2018). 여가 활동은 이주민 개인의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지지 체계 형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 환경은 제도적 관심과 학문적 논의에서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 연구에서는 여가가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김의재, 강현욱, 2022; Moon & Park, 2007). 또한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사회통합을 위한 여가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였

다(민웅기, 김상학, 2014; 이문숙, 김재운, 2014).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민자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여가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가 활동이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며 다문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계획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 아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출발선 보장,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생활 환경 조성, 인권 침해 방지, 한국어 및 문화교육 확대 등 총 1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정책브리핑, 2023.4.7.).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뉴스기사라는 공적 담론의 매개체를 통해 이주민과 여가 활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여가가 다문화 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이주민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해가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여가 참여 양상을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가 다문화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의 여가 활동을 통해 어떤 문화적 교차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이주민의 여가 관련 이슈가 공적 담론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시선 속에

서 여가가 이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가 참여가 사회통합과 문화다양성 실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이주민이 여가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경험하는 제약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가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여가 활동이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주요한 사회문화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학문적으로 검증하고 실천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다문화 이주민의 여가 경험을 중심으로 여가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사회적 함의를 밝히고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여가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 언론 보도에서 이민자와 여가 활동 관련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플랫폼을 활용하였다. Big KINDS는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의 약칭으로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주요 언론사로부터 수집된 뉴스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한 뉴스 분석 플랫폼이다(박현진, 조원환, 2024; 김용영, 2025).

본 연구의 뉴스 기사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며 동시에 제4

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 및 시행된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민자 관련 여가 담론과 사회적 적응 관련 보도의 흐름을 포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기간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맥락과 사회 담론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여가 인식의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검색은 '이민자', '다문화', '여가'라는 3개의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논리 연산자 'AND' 조건을 적용하여 세 키워드가 동시에 포함된 기사만을 검색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검색식은 "이민자 AND 다문화 AND 여가"와 같은 형태로 적용되었다.

검색 대상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12개사로 한정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여론 형성과 공공 담론 구성에서 가지는 대표성과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이며 기존의 다수 선행연구에서도 중앙 일간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왔음을 반영한 것이다(김용영, 2025; 도홍일, 박준오, 이주락, 2024).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총 19,466건의 기사가 수집되었으며 이후 중복 기사 445건을 제거한 최종 19,021건의 기사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 2. 전처리 및 내용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은 파이썬(Python)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마이닝에 특화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일련의 분석 절차를 진행하였다. 뉴스 기사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제 및 전처리 작업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

성을 제고하였다.

우선 수집한 기사 데이터에서 한글 이외의 불필요한 특수 문자 및 숫자를 제거하였다. 그 후 의미 전달에 기여하지 않는 불용어(stopwords)를 사전에 구축하여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문맥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간의 유의어(synonym) 통합 처리를 통해 어휘적 중복을 방지하고 의미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텍스트 정제 이후에는 형태소 분석 도구인 KoNLPy 라이브러리의 Okt(Open Korean Text) 분석기를 활용하여 문장을 형태소 단위(명사)로 분해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문서에서 의미 있는 단어만을 추출하고 불용어(stopwords) 제거 및 단어 길이 필터링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는 파이썬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수량화하였다. DTM 구축은 뉴스 담론 내 주요 개념의 분포와 빈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토픽 모델링(LDA)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분석 단계에서는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 중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미 해석이 불명확한 단어들을 제거하고 다문화, 이민자, 여가 단어를 필수단어로 입력하고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출된 단어의 빈도는 TF(Term Frequency) 값으로 이는 각 문서 내 특정 단어가 나타난 횟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빈도만으로는 불용어와 같은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 전달력이 낮은 단어들도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중요도를 보정하기 위한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함께 고려하였다. IDF는 전체 문서 집합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희소하게 출현하는지를 나타내며 이 값을 통해 정보성이 낮은 고빈도 단어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Robertson, 2004). 최종적으로 각 단어의 TF와 IDF를 곱한 TF-IDF 값을 산출하여 문서 내에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뉴스 기사 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인식과 담론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민자의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여가 활동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III. 결과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기사 중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 19,021건의 기사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19,021건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정제를 실시한 결과 109,347개의 단어가 추출되었고 중복을 제외하고 최종 16,089개의 단어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 1. TF, TF-IDF 분석 결과

뉴스 기사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어 빈도(TF) 및 TF-IDF 상위 20개 키워드 분석 결과, ‘다문화’, ‘한국’, ‘외국인’, ‘서울’, ‘센터’, ‘가족’, ‘사회’, ‘교육’, ‘문화’, ‘여가’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언론 담론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사회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주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TF와 TF-IDF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한 ‘다문화’는 전체 담론의 핵심 키워드로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와 높은 정합성을 지닌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와 ‘문화’의 TF 값은 높지 않지만 TF-IDF 점수는 상위에 위치함으로써 단어의 전반적인

회소성 대비 중요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 여가 활동 및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이 뉴스 기사 내에서 특정 문맥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이 단순한 언론 빈도 분석을 넘어 사회적 의미의 맥락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을 확인하기 위해 TF, TF-IDF값을 기반으로 상위 20개 단어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TF, TF-IDF 분석 결과

	키워드	TF(n)	TF-IDF
1	다문화	4441	0.1405
2	한국	1293	0.0732
3	외국인	1062	0.0631
4	서울	915	0.0618
5	아시아	792	0.0507
6	센터	875	0.0460
7	가족	866	0.0426
8	사회	755	0.0409
9	주민	638	0.0396
10	교육	699	0.0390
11	문화	626	0.0365
12	지원	541	0.0346
13	여가	447	0.0339
14	학생	526	0.0338
15	지역	581	0.0325
16	한국어	464	0.0324
17	체험	415	0.0323
18	관계자	415	0.0301
19	포용	487	0.0289
20	가정	444	0.0284

\*TF-IDF 기준 내림차순 정렬

## 2. LDA Analysis

본 연구는 국내 뉴스 기사에서 ‘다문화’, ‘여가’, ‘스포츠’와 관련된 담론이 어떠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뉴스 기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는 대규

모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내재된 주제 구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기계 학습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적용하였다(Griffiths & Steyver, 2004). LDA는 문서 내 공출현 단어들의 패턴을 기반으로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군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문서에 포함된 주제를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이다(Feldman & Sanger, 2007; Miner, 2012). 이를 통해 이민자의 여가 활동에 관한 언론 보도 속 주요 주제와 의미 체계를 다층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인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의 최적 토픽 수를 설정하기 위해 세 가지 평가 지표인 Semantic Coherence, Held-out Likelihood, Lower Bound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표는 주제의 해석 가능성, 모델의 설명력, 일반화 성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존 연구들에서도 토픽 수 결정에 활용되어 왔다(Blei, Ng, & Jordan, 2003; Röder, Both, & Hinneburg, 2015).

LDA 모델의 최적 토픽 수를 결정하기 위해 Semantic Coherence, Held-out Likelihood, 그리고 Lower Bound의 세 가지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픽 수가 6일 때 Semantic Coherence는 0.4159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해당 모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주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Held-out Likelihood와 Lower Bound는 토픽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8.93, -7.64에서 -9.86, -7.81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과도한 토픽 수 설정이 오히려 모델의 일반화 성능과 설명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주제 해석력과 일반화 성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적 토픽 수를 6개로 설정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다양한 평가 지표에 기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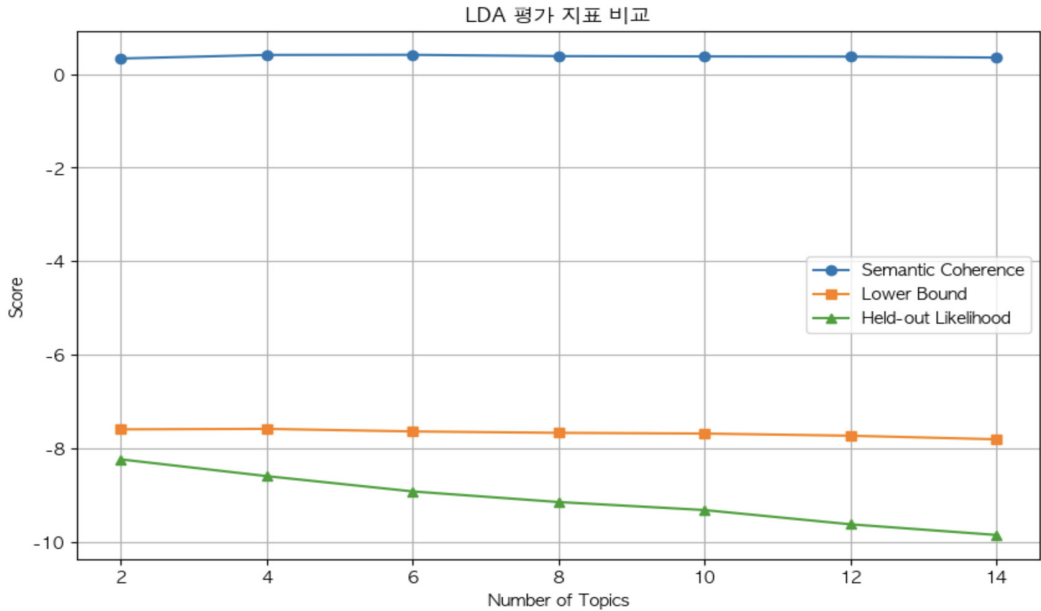


그림 1. Semantic Coherence, Lower Bound, Held-out Likelihood에 따른 최적 토픽 수

종합적인 판단 결과로, 향후 토픽 해석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측정 그래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도출된 각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전체 문서에서의 비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LDA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 번째 토픽에서는 ‘위원회’, ‘여가’, ‘서울시’, ‘의회’, ‘스포츠’, ‘경북’ 등의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시교육청’, ‘정책’, ‘주소지지원금’, ‘이주배경’ 등의 단어들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의회 차원에서 다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여가부’, ‘의회’, ‘정책’이라는 용어의 공존은 행정 주체들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 및 여가제도 설계에 있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토픽1은 다문화 가족의 여가 참여가 지방정부의 공식 의제 안에 포섭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가복지의 제도화와 다문화 포용이 함께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토픽은 전체 토픽 중 가장 높은 비중(23.1%)을 차지하였으며, ‘한국’, ‘외국인’, ‘가족’, ‘이민자’, ‘결혼’, ‘센터’, ‘주민’ 등의 키워드가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불법’, ‘체류자’, ‘국제결혼’, ‘다양한’, ‘지역사회’ 등의 연관 단어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의 체류, 통합, 고용 문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보여준다. 이 토픽은 결혼이주민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가족관계 등록, 체류자격 문제 등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양상까지 포괄하고 있다. 토픽2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적 배제와 제도적 통합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세 번째 토픽에서는 ‘교육’, ‘교육청’, ‘한국어’, ‘학생’, ‘학교’, ‘문화’ 등의 교육 관련 키워드가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토픽은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학교 적응,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관련된 뉴스 담론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학생’, ‘다문화특구’, ‘현장’, ‘학급’ 등의 단어는 교육

표 2.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Analysis

No	할당량(%)	전체 용어 빈도에 따른 토픽 용어 행렬 출력 값(beta)	각 토픽에 속한 추정된 용어
1	15.4%	위원회(0.024), 여가(0.015), 서울시(0.011), 여가부(0.008), 스포츠(0.008), 의회(0.007), 경북(0.007)	위원장, 시교육청, 영향력, 다문화, 시민들, 지원, 위탁기관, 이주배경, 정책, 대외, 주소지,지원금 등
2	23.1%	한국(0.034), 외국인(0.033), 가족(0.027), 이민자(0.015), 결혼(0.015), 서울(0.012), 주민(0.011)	베트남, 센터, 불법, 일자리, 당국자, 체류자, 신청, 태국, 입국, 비자, 국제결혼,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3	17.7%	교육(0.029), 교육청(0.023), 한국어(0.022), 학생(0.019), 학교(0.016) 스포츠(0.016), 문화(0.011)	경기도, 안산, 한국, 유학생, 다문화, 어학당, 지원센터, 용어, 외국인자녀, 다문화특구, 맞춤, 배움, 학급, 현장 등
4	17.2%	지역(0.016), 가정(0.015), 이웃(0.012), 계층(0.012), 사회(0.011), 공헌(0.011) 지원(0.010), 함께(0.010)	사회, 활동, 계층, 복지, 사회문화, 인프라, 정책, 공익활동, 건전문화, 사회공헌, 약자, 포용, 센터, 예산, 협의 등
5	15.7%	복지사업(0.020), 프로그램(0.014), 여가(0.013), 가족(0.013), 체험(0.011), 지역(0.011), 사회(0.011), 주민(0.011), 장애인(0.009)	지원, 외국인, 주민복지, 문화, 수용성, 지속적, 사업비,생활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실내레포츠실, 다목적체육실, 아카데미 등
6	10.5%	여가(0.018), 세계(0.018), 페스티벌(0.016), 어울림(0.013), 아시아(0.011), 시민(0.010), 글로벌(0.009), 공원(0.009), 문화(0.009)	서울시, 다양성, 명소, 놀이, 축제, 세계, 놀이터, 체험행사, 전통문화, 화합, 체감형, 시설, 한마당, 어울마당, 소통, 협력

\*beta: 각 토픽 내에 등장하는 단어의 조건부 확률

현장에서의 다문화 실천 사례나 제도적 대응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은 언어적 통합뿐 아니라 문화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토픽3은 교육이 다문화 사회 통합의 기초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네 번째 토픽에서는 ‘지역’, ‘가정’, ‘이웃’, ‘계층’, ‘사회’, ‘공헌’, ‘함께’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다문화 포용과 공동체 기반 활동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사회문화’, ‘정책’, ‘포용’, ‘센터’, ‘협의’ 등의 단어는 다양한 계층 및 배경을 가진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공존,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사회문화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

로서 이주민을 통합하려는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토픽4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지역 단위 ‘로컬 거버넌스’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 토픽에서는 ‘복지사업’, ‘프로그램’, ‘체험’, ‘주민’, ‘장애인’, ‘공공정책’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며, 이는 문화, 체육,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생활 밀착형 지원 프로그램들이 언론 보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공체육시설’, ‘아카데미’ 등의 키워드는 다양한 복지 콘텐츠가 여가 활동과 결합되어 다문화 가정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토픽5는 다문화 가족이 단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여가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여섯 번째 토픽은 ‘여가’, ‘세계’, ‘페스티벌’, ‘시민’, ‘공원’, ‘글로벌’, ‘아시아’, ‘어울림’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주로 문화축제, 세계시민교육, 전통문화 체험행사 등 다문화 감수성과 교류를 촉진하는 여가활동 중심의 기사들에서 나타난 주제이다. ‘서울시’, ‘협력’, ‘소통’, ‘체험행사’ 등의 키워드는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 문화적 접점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려는 노력이 언론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토픽6은 다문화 담론이 갈등이나 제도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적 접촉과 문화적 공존의 공간으로서 여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뉴스기사 분석을 통해 그동안 시행되어 온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여가정책 및 다문화 이주민이 여가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경험하는 제약과 기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토픽에서는 ‘위원회’, ‘여가’, ‘서울시’, ‘의회’, ‘스포츠’, ‘경북’ 등의 키워드가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 차원에서 다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여가부’, ‘의회’, ‘정책’ 등의 용어의 공존은 행정 주체들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복지 및 여가 제도 설계에 있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곽영길, 오세연(2010)의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조영희, 박민정(2018)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

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다문화 가족의 여가 참여가 지방정부의 공식 의제 안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토픽에서는 ‘한국’, ‘외국인’, ‘가족’, ‘이민자’, ‘결혼’, ‘센터’, ‘주민’ 등의 키워드가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불법’, ‘체류자’, ‘국제결혼’, ‘다양한’, ‘지역사회’ 등의 연관 단어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의 체류, 통합, 고용 문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보여준다. 토픽2에서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 운영, 가족관계 등록, 체류자격 문제 등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양상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적 배제와 제도적 통합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선행 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Kim, & Kilkey(2017)는 한국의 결혼이민자 정책이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Wijerathna, & Hewapathirana(2022)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가족의 여가 참여가 지방정부의 공식 의제 안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3은 ‘교육’, ‘한국어’, ‘학생’, ‘학교’, ‘문화’ 등의 키워드가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가 교육 및 문화적 감수성 교육이 뉴스 담론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습득의 수단을 넘어 문화적 통합의 매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이주배경 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소속

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 교육이 단순한 활동 제공을 넘어 다문화 사회 통합의 기초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결과는 국내외의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여가와 교육이 결합될 때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통합 효과가 극대화됨이 확인되고 있다. 김익준(2013)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송효준, 함승환(2019)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Aronson, & Gerdner(202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센터 방문과 구조화된 여가 활동 참여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구조화된 여가 활동 참여는 출신에 관계없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고 설명하며 여가 활동이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이주배경을 갖은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여가 활동을 통합하는 것은 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적 감수성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소속감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토픽 4의 분석 결과는 ‘지역’, ‘가정’, ‘이웃’, ‘계층’, ‘사회’, ‘공헌’, ‘함께’ 등의 키워드가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다문화 포용과 공동체 기반 활동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사회문화’, ‘정책’, ‘포용’, ‘센터’, ‘협의’ 등의 단어는 다양한 계층 및 배경을 가진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공존,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사회문화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주민을 통합하려는 공동체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

타낸다. 박종관(2015)은 다문화사회 유입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문화 분야라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지역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근, 조무현(2013)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로는 다문화 사업 추진의 다양성 필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정책 및 서비스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개선,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다문화 포용과 공동체 기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토픽은 ‘복지사업’, ‘프로그램’, ‘체험’, ‘주민’, ‘장애인’, ‘공공정책’ 등과 같은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문화, 체육,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며 여기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여가 활동과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은 김정현(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해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복지 기반 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여가활동이 단순한 시간 소비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문숙, 김재운(2014)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문

숙, 김재운(2014)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경우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적응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족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도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 프로그램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심리적 안정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가 활동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은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핵심 철학과도 연결된다.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소통 능력 강화, 건강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며 이는 여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과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Dattilo, 2021). 따라서 토픽5는 다문화 가정을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여가와 문화를 매개로 한 ‘참여의 주체’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여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여가 기반 통합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섯 번째 토픽은 다문화 담론이 제도적 통합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적 접촉과 문화적 교류를 통한 공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시’, ‘협력’, ‘소통’, ‘체험행사’ 등의 키워드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주도의 문화 축제와 여가 프로그램이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의 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 촉진에 핵심적인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적 장으로서의 여가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문화시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옥일남(2018)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과제 및 실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시대의 평생교육은 단순한 인지적 시민 교육을 넘어 문화예술 및 축제를 통한 감성적 시민성 실현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원, 광장, 문화센터와 같은 여가공간은 이주민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거점이자

일상적인 만남의 장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도시문화축제와 같은 사례는 ‘참여형 문화축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며 이와 같은 공공 주도의 다문화 체험 행사는 ‘타자’로 분리되었던 이주민이 지역문화의 공동 생산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가능케 한다. 강남구 가족센터가 주관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특정 문화에 대한 일방적 소개가 아니라 시민 전체가 주체적으로 어울림과 소통을 경험하는 공공문화형 여가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파이낸스투데이, 2023.5.19.).

Mahoney & Stattin(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구조화된 여가 활동이 사회적 정체감 형성과 소속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여가가 단지 시간 소비가 아닌 사회문화적 통합과 세계시민성 형성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토픽6의 결과는 여가활동이 다문화사회에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장(場)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수용성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일상화하는 효과적 수단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섯 개의 토픽은 다문화 이주민의 여가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정책, 가족, 교육, 지역공동체, 복지, 문화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여가는 단지 여가의 소비 활동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논의의 대상이자 문화적 소속감의 촉진자이며 사회적 통합의 실천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제도적 접근(토픽1), 가족 기반 정책과 이주민의 제도 통합(토픽2), 청소년 교육과 문화 감수성 함양(토픽3), 지역사회 공동체 포용성 강화(토픽4), 복지와 결합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토픽5), 시민적 감수성을 실현하는 문화 여가 공간(토픽6) 등은 각각 독립된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가를 통해 다문화사회 속

관계 맺기와 공존의 경험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라는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 이주민의 여가가 제도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조적 기능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가의 특성은 다문화 사회에서 여가를 단순한 사적 행위가 아닌 공공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매개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언론 보도에 나타난 다문화 이주민의 여가 관련 담론을 주제로 뉴스 텍스트를 수집하고,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여가가 수행하는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총 19,021건의 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가는 단순한 여가 소비를 넘어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적·교육적·지역사회적·문화 실천의 매개 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지방정부와 의회 수준에서 여가정책이 공식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여가가 정책적 통합 수단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중심의 가족 이슈는 체류 자격, 복지 수혜, 고용 등의 사회구조적 긴장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언어교육 및 문화감수성 교육의 맥락에서 여가는 교육 통합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넷째, '이웃'과 '계층', '함께' 등의 키워드가 도출된 지역사회 기반 토픽에서는 공동체 단위의 상호작용과 포용성이 여가 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으며, 다섯째, 문화·체육·복지가 통합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은 여가가 복지의 수단이자 주체성 회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토픽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다문화축제, 체험행사 등 여가를 통한 일상

적 문화 접촉과 글로벌 시민성 형성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가 제도적 통합, 사회적 관계망 구축, 정체성 회복, 문화 교류, 그리고 세계시민적 감수성 함양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사회 통합의 복합적 메커니즘에서 핵심적인 실천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다. 여가는 단지 사적 시간 활용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시민 간 상호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일상 속 공존의 장'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언론에 나타난 다문화 이주민의 여가 관련 담론을 중심으로 여가가 사회적 통합, 문화교류, 정책적 실천의 장으로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언론 보도에 기반한 이차자료 분석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주민 당사자들의 여가 경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민 개인의 삶의 맥락에서 여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참여관찰,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정량적 자료 수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 대상 데이터가 중앙 일간지 위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여가정책 및 여가 담론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지역 신문, 방송 보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로컬 수준에서의 여가 실천과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접근을 넘어서 국적, 연령, 성별, 체류 자격,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여가 경험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 청소년 이주배경 학생, 장기체류자와 단기노동자 등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여가 참여 기회와 제약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곽영길, 오세연. (2010).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217-238.
- 김보람, 김매이. (2021). 여가활동 참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 결정요인. *여가학연구*, 19(3), 71-91.
- 김영근, 조무현. (2013).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307-327.
- 김용영. (2025). Pear Therapeutics 의 실패에서 찾는 디지털 치료제 산업의 성장 전략: 빅카인즈 (BIG KINDS)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23(3), 11-22.
- 김익준(2013).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이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김의재, 강현욱. (2022). 사회적 약자의 여가 교육 효과: 메타분석. *여가학연구*, 20(2), 101-114.
- 김정현. (2014).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 및 정책 방안-문화적응 모델과 치료 레크리에이션의 평생의 건강 최적화 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3), 131-144.
- 김종순, 오세숙. (2018). 일과 여가균형 정도에 따른 남성 베이비부머의 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 및 행복수준의 차이. *여가학연구*, 16(3), 37-5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 4.7).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63#goList]
- 도홍일, 박준오, 이주락. (2024).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경찰 관련 국내 언론보도 변화 분석. *한국경찰연구*, 23(3), 55-80.
- 민웅기, 김상학. (2014).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여가제약이 여가활동 참여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가관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8(5), 45-61.
- 박종관. (2015).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222-233.
- 박현진, 조원환. (2024).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한 평생교육 관련 언론보도 분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2(1), 171-193.
- 송효준, 함승환. (2019).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돕는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적 통합 양상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45(1), 127-149.
- 옥일남(2018). *다문화시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세계·민주시민교육 과제 및 실천 방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윤채빈, 박수정. (2012). 다문화가정의 가족여가 활성화방안.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 67-81.
- 이문숙, 김재운. (2014). 다문화가정 부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참가가 가족탄력성 및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1), 17-32.
- 조영희, 박민정.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만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01.
- 파이낸스투데이(2023.5.19.). *강남구, 다문화축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 개최*.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61
- 한지훈, 이문진, 서광봉. (2022). COVID-19 상황에서 여가참여자들의 스트레스관련 성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6(1), 1-10.
- Aronson, O., & Gerdner, A. (2021). Youth centers, structured leisure activities, and friends of native and foreign origin: A two-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Leisure*

- Research*, 52(3), 265–285.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http://www.jmlr.org/papers/volume3/blei03a/blei03a.pdf>
- Dattilo, J. (2021). *Leisure education program planning: A systematic approach*. Sagamore–Venture. 1807 North Federal Drive, Urbana, IL 61801.
-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G., & Kilkey, M. (2018). Marriage mi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Social investment beyond the nation state. *International Migration*, 56(1), 23–38.
- Mahoney, J. L., & Stattin, H. (2000). Leisure activities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The role of structure and social 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23(2), 113–127.
- Miner, G. (2012). *Practical text mining and statistical analysis for non-structured text data applications*. Academic Press.
- Moon, S. J., & Park, C. Y. (2007). Media effects on acculturation and b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Koreatow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0(3), 319–343.
- Robertson, S. (2004). Understanding inverse document frequency: on theoretical arguments for IDF. *Journal of documentation*, 60(5), 503–520.
- Röder, M., Both, A., & Hinneburg, A. (2015). Exploring the Space of Topic Coherence Measures. Proceedings of the Eigh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WSDM '15)*, 399–408. <https://doi.org/10.1145/2684822.2685324>
- Wijerathna, M. P., & Hewapathirana, G. I. (2022). Hidden stories behind global love: Acculturative and social integration challeng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9, 111–123.